

한국낙농의 현실과 정착화를 위한 생산자의 자세

책임연구원 이 철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낙농의 성장과 전망

낙농업은 최근 십여년 동안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한 부문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대부분의 농업부문은 정체하거나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마련인데 비하여 축산부문 특히 낙농부문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우유의 수요가 소득수준의 향상에 의해 계속 증대할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나라 낙농의 앞날은 어둡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의 성장속도에 비하면 앞으로의 장래가 그렇게 크게 낙관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1970년 이래 우유의 소비량은 연평균 22.9%씩 증가하였으나 그 성장률의 변화를 보면 1970년에서 198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이 23.5%이었으며 최근 5년(78~83년) 동안의 연평균 소비증가율은 17.5%로서 그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1인당 우유 소비증가율은 15.7%로서 더욱 낮은 수준에 있다.

반면에 우유생산량은 과거 14년동안 22.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소비증가율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우유공급이 모자랐으므로 많은 낙농농가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5년동안의 생산증가율은 17.2%로서 소비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변화되고 있다. 젖소의 사육이 크게 감소할 요인이 없는 한 우유생산은 최소한 현재의 증가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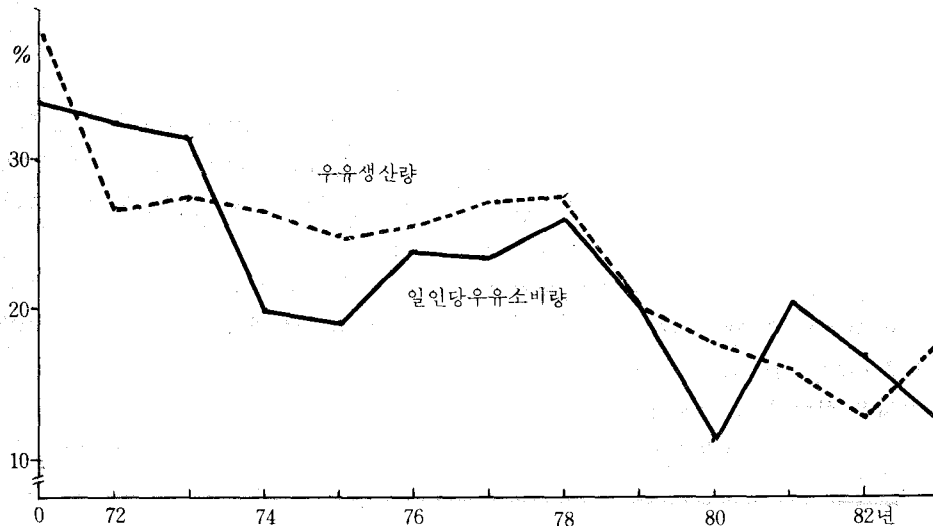


그림 1. 우유생산과 1인당 우유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 (3개년 이동평균)

를 유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나 우유의 수요량이 과거와 같은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당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유「수요의 소득탄성치」가 1975년 2.21에서 1982년 1.61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1992년의 소득탄성치는 1.44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수요분석의 대상기간이 최근으로 이동할수록 소득탄성치가 낮아지는 반면에 「수요의 가격탄성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에는 우유의 소비증가율이 2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80년대에 들어서서는 20%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우유소비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증가에 대한 반응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우유의 공급가격이 아직은 비싼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득보다는 가격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낙농의 발전조건

한국에서 특정산업이 성립하고 발전하는 데에는 그 조건이 있기 마련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축산이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발농사 위주의 농업구조였기 때문이다. 발농사는 물에서 재배하는 논농사와는 달리 지력의 소모가 많고 또 건조하여 흙이 바람과 물에 유실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휴경법(休耕法)이 일반화되어 지력회복이나 표토의 피복효과를 위하여 초지가 자연발생적으로 도입되어 정착되었으며 목초의 활용을 위하여 젖소의 사육이 촉진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와 같은 조건과

- 1)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우유수요의 변화율의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
- 2) 즉, 우유의 가격이 변화하는 비율에 대한 우유수요량이 변화하는 비율의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

전혀 다른 것이다. 즉 논농사 위주에 채소와 양념류를 생산하기 위한 발농사가 전부였으므로 축산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었으며, 있다 해도 부업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낙농의 경우 해방 전까지만 해도 젖소는 차라리 희귀한 동물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낙농업이 이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었던 조건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동물성단백질 식품중 우유가 가장 우수한 식품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국민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가?

우리나라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것이 수입하는 것보다 더 싸게 우유를 공급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가?

전 국토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산간지역을 개발하여 이를 생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낙농이 도입 권장되고 있는가?

얼마되지 않는 낙농농가나 유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낙농이 보호되고 있는가?

우유를 신선한 상태로 공급하기 위해서 국내에서의 낙농은 불가피한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는가?

위에서 열거한 몇가지 의문에 대하여 도시근교에서 조그만 운동장에 벼짚과 배합사료로 영위되고 있다고 특징지워지는 한국 낙농의 현실이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개방경제사회를 눈앞에 둔 오늘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낙농형태로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한국 낙농의 갖가지 병폐를 새삼스럽게 재론하려는 것은 아니나 우리 모두가 오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있음으로써 앞으로 개선이나 발전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낙농의 발전조건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몇가지 조건을 조금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낙농업이 성립할 수도 없을 것은 분명하나 우리는 보다 많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우유제품의 가격보다 국내가격이 더 낮을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국내 생산가격이 외국보다 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낙농의 발전조건을 외국보다 싸지 않은 우유를 생산하는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같은 우유가격 수준에서 보다 많은 양축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하며 신선한 우유를 국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현실적인 갖가지 제약이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많은 농가가 낙농을 통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또 국내자원을 개발 활용하여 많은 국민에게 신선한 우유를 공급하는 것만이 한국에서 낙농이 그 존재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않는다면 한국에서 낙농이 꼭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은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생산자인 농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현재와 같은 도시 낙농이 계속되는 경우 낙농인 모두가 그들의 존립을 위해 온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낙농산업의 구조와 효과

한국낙농의 상황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예전처럼 우유가격의 인상이 우유수요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소득효과에 의한 수요증가보다는 가격상승에 의한 수요감소가 더욱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그래도 당분간은 우유에 대한 수요량이 절대적으로는 감소하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즉 우유생산량에 비해 수요량의 증가율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우유의 소비량이나 공급량이 다같이 증가할 것이 분명하나 상대적으로 생산에 비하여 수요가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유수급이 불균형적일 경우 농가의 입장에서는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한의

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낙농제품의 판매시장이 독과점 산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유가격이 정부의 고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조절을 통한 수급균형의 달성은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유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는 생산농가가 모두 떠맡게 되는 것이다. 즉 우유가 남을 경우 유업체는 우유수요가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한 우유를 더 많이 구입할 이유가 없으며 우유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유업체에 유리하도록 유지방률을 낮추거나 불합격률을 높이는 등의 갖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이 분명하며 우유가 모자란 경우에도 그들의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하여 농가에 대한 유혹을 통해 그들의 원유확보량을 최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약한 농가는 항상 불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유소비량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생산공급을 담당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공급과잉이나 부족현상을 여러 차례 겪었으며 일부 우유제품은 아직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우유의 수급조절은 우유제품의 수입과 방출, 그리고 유가공 공장에서의 유제품의 재고량 조절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수급조절 방법은 적은 양일 경우에는 그런대로 가능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크게 증대하게 될 수급규모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수급조절방법이 계속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유의 판매가격이 고정되어 가격이 수급조절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유의 공급과잉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유의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가격제도를 개선하거나 별도의 우유수급조절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제 성장단계에 접어든 낙농업이 수급불균형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경우 개방경제를 지표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경제운용지침에 비추어 볼 때 회복불가능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하 26 페이지에 계속)

없었으나 4cm높이로 남기고 벨 경우에 동해(凍害)가 있었다고 한다. 건초를 목적으로 벨 때에는 출수직전에 베는 것이 품질이 좋은 건초생산의 지름길이다.

6) 리이드 카나리그라스와 기호성

목초 중에는 환경에 대한 적응범위가 가장 넓은 초종중의 하나인 리이드 카나리그라스가 초지에서 주초종으로서 권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가축에 대한 기호성이 낮다고 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시험결과에 따르면 부로움 그라스(bromegrass) 초지에서 방목되는 면양에 비하여 면양은 증체가 빈약하였고 기호성이 높은 리이드 카나리그라스 계통으로 되어 있는 초지에서 방목되는 면양은 낮
(이하 18 페이지에서 계속)

은 계통의 초지에서 방목되는 면양보다도 그 채식률이 훨씬 높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에 리이드 카나리그라스의 기호성은 식물체 중에 들어 있는 가축에 유해한 알카로이드류의 함량과 부(負)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알카로이드함량이 높으면 기호성이 낮아지게 되며 가축에 의한 목초의 빈약한 채식은 궁극적으로는 가축의 생산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리이드 카나리그라스의 기호성을 개량할 수 있는 품종의 선택과 관리방법이 이 목초에 의한 초지개발의 요점이 될 것이다.

생산자의 자세

우유의 가격은 정부에서 정한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된다. 그동안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또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우유가격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이와 같은 정책은 「한계 생산농가」

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낙농의 외연적인 규모를 확장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높은 가격수준에 의해 수요를 제한하는 역효과도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필수 영양분의 공급이 절실한 서민이나 빈곤층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소비량이 그렇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낙농가의 소득은 가격수준에 따라 결정되지만 결정된 가격에서 소득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는 생산자인 농가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는 농가소득은 가격에서 생산비를 공제한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유가격이 국민소득 수준이나 외국의 가격에 비해서 절대로 싸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유의 생산비가 올랐으므로 우유가격을 당연히 올려주어

야 한다는 생각과 주장이 농가에 일반화되어 있다면 낙농의 발전을 위해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자인 농가가 힘을 모은다면 유통비용의 일부를 그들의 소득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며 조직적인 기술지도와 대량거래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도 있다. 특히 수급조절의 효과를 감안한다면 생산자 단체의 수급조절 노력은 낙농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생산자단체에 문제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할 지라도 궁극적으로 생산자단체의 활성화와 낙농농가의 조직화만이 낙농가의 경영안정과 발전에, 그리고 낙농산업구조의 합리적인 재편성에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외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유제품의 경우 우유의 생산과 가공, 그리고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공급기능을 생산자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낙농산업의 합리화를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 똑같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낙농농가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여 부단한 노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